STATE OF NEW YORK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GOVERNOR

즉시 배포용: 2014년 9월 14일

CUOMO 주지사, MONTAGUE 지하철 터널에서 수퍼태풍 SANDY복구 작업의 조기 완공 발표

예산에 따라 일정보다 더 빨리 앞서 복구된 Brooklyn 과 Manhattan 구간을 잇는 R Train 서비스

향후 태풍에도 효율적으로 견딜 수 있게 된 재건된 터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Brooklyn과 Manhattan구간의 R Train 서비스를 정상으로 운영하게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리더들과 뉴욕시 선출 공무원들과 함께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이 발표는 수퍼태풍Sandy가 상륙할 당시 소금물에 침수된 Montague Tube 지하철 터널의 성공적인 재건 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일반 R Train 서비스는 월요일 오전 6시부터 재개됩니다.

이 2억 5천만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는 East River에서 Montague Tube 지하철 터널 운행이 전례 없이 완전히 중단된 기간 동안 일정보다 더 빨리 예산에 맞추어 완공되었습니다. 태풍Sandy가 상륙할 당시 약 2,700만갤런의 소금물이 4,000 피트 길이에 달하는 터널로 쏟아졌으며 전자 신호 장비부터 터널 조명 및 강철 레일까지 지하철 인프라의 모든 요소가 부식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수퍼태풍Sandy는 뉴욕시 지하철 시스템에 엄청난 피해를 안겨주었으나 오늘 우리는 피해를 복구하고 향후 태풍에도 견딜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는 힘찬 도약을 내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터널은 이전 것보다 더 안전하고 강력하고 내구성이 강하며, 새 레일, 새 신호, 새 펌프, 새 전원 공급장치 등 R Train의 이 구간에 있는 것들은 모두 새로운 것들입니다. 주정부는 극한 기상이라는 새로운 현실에 대비할 수 있도록 뉴욕주를 새로 재건하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두었고 오늘은 그러한 접근법이 모두에게 안전한 뉴욕주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시입니다."

MTA 의장 겸 CEO인 Thomas F. Prendergast는 "뉴욕 대중 교통망은 태풍Sandy 상륙 당시 지금까지 본 것 중 MTA에서 입은 가장 많은 피해"라고 말했습니다. "Montague Tube를 재건하는 데 필요한 노력은 영웅적인 행동과 다름 없었습니다. 극한 조건에서 하루도 쉬지 않고 1년 이상이라는 기간이

걸렸지만 향후 어떤 기상 위험이 닥쳐도 견딜 수 있는 터널에서 더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R Train을 복구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한 Federal Transit Administration뿐만 아니라 이를 이루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은 담당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물론, MTA와 뉴욕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 자신의 리더십을 아끼지 않은 Cuomo 주지사에게도 감사를 표하며, 처음부터 이 터널을 재건하는 동안 인내를 갖고 기다려주신 고객들에게도 감사 드립니다."

R Train은 대부분의 작업 기간 동안 2개 구간을 운행했습니다. 한 열차 구간은 Bay Ridge 95번가에서 Brooklyn 시내를 잇는 Brooklyn에서 운행되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Lower Manhattan의 Whitehall 가에서 Queens Forest Hills 71 Av까지 운행되었습니다. 주말 동안 R Train은 Manhattan Bridge를 통해 한 구간에서 운행했지만 Lower Manhattan과 Brooklyn 구간에서는 6개의 정거장을 건너뛰었습니다.

Montague Tube는 작업자들이 2개의 터널로부터 손상된 장비를 제거하고 붕괴된 양쪽 터널에서 콘크리트와 테라코타 덕트 뱅크를 철거하기 위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2013년 8월 3일부로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건설 작업자들은 Manhattan과 Brooklyn에서 시작되는 East River 아래의 4,000피트 길이 구간을 들어가서 터널을 통해 모든 파편을 제거하고 모든 장비와 도구를 가지고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작업자들은 11,000피트 길이의 트랙, 30,000피트에 달하는 콘크리트 및 테라코타 덕트 뱅크, 75,000피트의 전원 케이블, 그리고 200,000피트의 통신 케이블을 교체했습니다.

Federal Transit Administration Acting Administrator인 Therese McMillan은 "이 지역 역사 상 최악의 태풍의 중 하나로부터 뉴욕을 완전히 복구할 수 있게 도움을 준 확고부동한 지원에 대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은 New York MTA의 모든 관계자들께 감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수퍼태풍Sandy가 지나간 후 MTA에 지급된 기금은 인프라를 수리 및 재구축을 위해 먼 길을 달려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뉴욕시민들에게 인프라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돌려드리게 되었으며 그것이 전보다 더 튼튼하게 만들어졌다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MTA Fix & Fortify 엔지니어들은 향후 태풍으로 인해 어떤 홍수가 발발해도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새 전략과 함께 터널 수리를 설계했습니다:

- 가장 중요한 신호 중계실은 트랙에서 Whitehall St. 스테이션 단지로 이전되었습니다,
- 트랙에 전원을 공급하는 터널의 회로 차단실은 대용량 방수 및 잠수함급 도어로 밀폐되었습니다,
- 비상 조명은 배터리 백업과 함께 설치되었습니다,
- 새 전력 및 안테나 케이블은 침수를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하여 선택되었습니다,
- 추가 용량을 지원하는 새 펌프 장비는 터널 내에 설치되었습니다.

Montague Tube의 성공적인 재건은 향후 폭풍에 맞서 더 강한 내구성을 갖는 동시에 태풍Sandy에게

입은 수십 억 달러의 물적 피해를 입은 인프라 네트워크를 재건하는 MTA의 Fix & Fortify 프로그램이 수립된 최근 몇 주 동안의 두 번째 성과입니다. Creek Brooklyn과 Queens 사이에서 Newtown Creek을 잇는 G Train 노선인 Greenpoint Tube는 홍수 피해 복구를 위해 사상 최초 5주 동안 운행을 종료한 후 다시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9개의 MTA 지하철 터널은 Sandy 상륙 기간 동안 침수되었고, South Ferry 지하철 역은 완전히 침수되었습니다. Queens의 Jamaica Bay를 잇는 선로는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East River를 잇는 양방향 노선 터널도 침수되었습니다. Long Island Rail Road의 Long Beach Branch 구간은 상당한 홍수 피해를 입었으며 Metro-North Railroad의 긴 구간도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
WE WORK FOR THE PEOPLE
PERFORMANCE * INTEGRITY * PRIDE